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인문도시와 공동체 내에서의 타자의 문제

- 인문도시 진주 사업을 중심으로*

장만호**

- 목 차 -

- I. 공동체의 호명으로서의 인문도시지원사업
- II. 도시적 삶과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인문도시
- III. 인문도시 진주의 기획과 타자의 문제
- I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운영 방법과 목표를 검토하고 2020년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인문도시 진주’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주제의 설정 과정,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인문학을 전파,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인문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현대 도시와 도시적 삶의 문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개최한 전국학술대회(2020. 12. 18)에서 발표했던 발표문을 수정한 것임,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20S1A6A6081619).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문도시 진주 연구책임자

과 성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인문도시가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집 보관소로서의 공동체’인 동시에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같은 가능성을 토대로 인문도시 진주 사업단은 사업 지역인 진주시에 필요한 가치가 ‘우리 안의 타자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 타자들이며, 나는 나인 동시에 상대의 타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일 집단 내에서의 소외와 배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타자’의 문제가 단순히 특정 외부 집단에 대한 호의와 배려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배제와 소외의 극복이야말로 인문학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시급한 책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문학, 진주를 품다’라는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소통과 치유, 동행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제어 : 인문도시, 인문학, 진주시, 인문도시지원사업, 도시, 공동체, 타자, 헤테로토피아

I. 공동체의 호명으로서의 인문도시지원사업

빌헬름 뢰블트는 인간의 진실한 목적은 “자신이 가진 능력들을 하나의 전체로 가장 높고 가장 잘 균형 잡히게 계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이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인간의 완성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을 통해

다양한 상황들과 교섭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을 억제하려는 모든 국가적 시도는 결과적으로 인간 완성을 저해한다고 그가 주장했던 것은 이 같은 근거에 기반한다.¹⁾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 지원·전파 사업은 훔볼트의 생각을 역으로 밟아나가고 있는 듯하다. 국가 주도의 인문학 전파 사업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관여함으로써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²⁾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을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럼으로써 보편적인 인문지식과 사유에 자유로이 접근하도록 하자는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인문학을 보호하고 전파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가 개인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자신을 ‘하나의 전체로 가장 높고 가장 잘 균형 잡히게 계발’하기 어려운 사회이며, 다양성보다는 형식적이고 계량적인 가치 기준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불어 국가가 인문학자와 인문학 분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인문학적 성과를 시민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그 자체로 인문학이 자생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인문학 열풍’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인문 강연과 행사들이 개최되지만, 일정 부분 그것들은 자본과 언론의 기획에 힘입은 ‘기획’의 성격이 짙다. 실제로 대학의 구조조정에서 정원 감축과 폐과의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인문학임은 엄연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인문학은 ‘국가적 기획’을 통해 보호해야 하고, 특별한 기획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여해야만 하는 ‘치료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인문학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시대마다 제기되었으나

1) 이상 훔볼트의 논의는 Wilhelm von Humboldt, 양대중 옮김, 『인간교육론』, 책세상, 2012. 55쪽. 참고.
 2) 여기서 상황의 다양성이란 주체가 고립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라는 점에서 선택지의 다양성이라 불려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관리대상으로서의 인문학, 치유제로서의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이다. 1996년 11월 제주에 모인 국공립대 인문대 학장들은 인문학이 존재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문학 연구와 교육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인문학 제주 선언’을 발표했다. 2001년에는 국공립대 인문대학협의회가 ‘2001 인문학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이 인문학의 위기 타개를 촉구하는 ‘인문학 선언문’을, 뒤이어 9월 26일에는 80여 개 대학의 인문대 학장들이 대학과 정부에 인문학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하는 ‘오늘의 인문학을 위한 우리의 제안’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선언과 제안은 시기와 주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은 보호받아야 하는 학문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인문학이란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소비의 사회에서 위축되어가는 학문분야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언이기도 했다.

한국연구재단이 2002년부터 추진한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07년 추진한 ‘인문한국(HIK)’사업, ‘시민인문강좌사업’ 등은 국가적 차원의 인문학 진흥사업이며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 역시 위에 열거한 사업들과 동일한 추진 배경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타의 사업들이 ‘인문학’ 연구의 토대 구축이나 연구 인력의 양성, 연구 성과의 확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좀더 특별한 목적과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공동체’의 형성과 지향이 그것이다. 그 예로 2014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요강을 보면, “인문도시란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강좌」·「인문체험」·「인문축제」 등을 통해 인문학(문학·역사·철학·종교·예술 등)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극복

하고 ‘인간과 그 삶의 가치’ 회복을 추구하는 인문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문도시는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활용하는 사업이다.
- ② 인문도시는 인문강좌·인문체험·인문축제의 형식을 통해 인문학을 전파한다.
- ③ 인문도시의 ‘인문’은 문학·역사·철학·종교·예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④ 인문도시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과 그 삶의 가치’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 ⑤ 인문도시는 인문공동체이다.

③과 ④의 경우는 인문학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따르고 있다. 주목할 것은 ①과 ②, ⑤의 항목들이다. 이 항목들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여타의 사업들과 인문도시 사업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①의 경우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이 균질화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지역민과 밀착하는 지역연계형, 지역특화형 사업을 지향하라는 의미이다. ②의 경우 체험과 축제를 통해 기존 강연의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지식과 소양의 함양을 넘어 삶의 인문학, 생활의 인문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⑤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드러낸다. ‘인문도시는 곧 인문공동체’라고 정의함으로써 인문도시 사업을 통해 인문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하라는 것이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목표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2016년의 신청요강에는 ‘인문공동체’ 대신 ‘지역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써 인문도시 사업이 ‘공동체’의 형성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요구하고 있음이 한층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국 인문도

시 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 문학 등의 자산으로부터 해당 지역만의 인문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인문공동체의 형성을 겨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의 전파를 넘어 인문공동체나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특성상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적 삶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도시’와의 연관 속에서 그 실행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인문공동체나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문학 전파 사업의 범위를 넘어선다. ‘우리 시대에 공동체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문도시 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사업의 방법들, 지역 인문자산의 선택과 집중, 지역 정체성의 창안, 인문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에 관한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가능성과 그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2020년 7월에서 2023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인문도시 진주’의 현황과 목표, 사업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도시적 삶과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인문도시

2018년 UN의 보고서는 전 세계의 도시화율이 55%에 이르고 있으며,

도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찍이 도시의 문제를 사유한 짐멜이 말한 바와 같이 “대도시에 작용하는 힘들은 전체 역사적 삶의 뿌리와 정점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하나의 세포 같은 덧없는 존재로서 그러한 삶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⁶⁾ 더욱이 현대의 도시는 짐멜이 경험했던 근대 도시의 화폐경제와 이성의 객관성, 분업화와 전문화의 개별화, 이 같은 조건들로부터 형성되는 예민함, 둔감함, 반감 등의 정서⁷⁾를 넘어서 있다. 현대의 도시 문제는 정치경제적 문제, 글로벌화, 정보화, 인종과 다문화, 환경과 생태의 문제 등 인간 활동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짐멜이 포착한 “사회적·기술적 매커니즘 속에서 평준화되고 소모되는 데 대한 개인의 반항”과 좌절의 문제, “삶의 개인적 내용들과 초개인적 내용들” 사이에서 근대적 도시인이 이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현재의 우리 내면이 여전히 치르고 있는 과정이며,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한층 더 격렬해진 ‘전투’라는 사실이다. 공동

6) Georg Simmel,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53쪽.

7) 짐멜에 따르면 인간은 차이를 그 본질로 하는 존재이지만, 도시를 지배하는 화폐경제와 이성은 사람과 물건을 취급함에 있어 ‘인간적’ 차이를 무화시킨다. 즉 자본주의 체제와 합리성이 차이에 입각한 우리 존재의 속성, 즉 개체성을 형식적이고 계량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장소가 곧 도시인 셈이다. 또한 정확성과 엄밀성을 통해 운영되는 도시는 도시인들을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정신의 소유자로 만들지만, 역설적으로 사물들의 차이들이 지니는 의미나 가치를 공허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자극에 대한 둔감함의 소유자로도 만든다. 정확성과 치밀성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예민함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둔감함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도시는 또한 분업과 전문화가 증대되는 장소이다. 분업화된 체계에서 개인은 자신이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기능을 찾기 위해 자신의 성과를 전문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을 느끼게 되고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업화와 전문화, 다시 말해 개별화가 촉진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지성, 유연성, 이상주의 등은 퇴보될 수밖에 없는데, 분업과 전문화는 개인에게 점점 일면적인 업적만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일면적 업적이 증대하게 되면 개인의 인격 전체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은 무시 가능한 존재로 격하된다. 그러나 짐멜은 이 같은 도시적 삶이 오히려 개인을 탄생시켰다고 본다. 개인의 인격 전체가 위축되고 무시 가능한 존재로 격하되었을 때, 오히려 가장 개인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역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개인적인 것을 구체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짜내야 하며, 누군가를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만을 위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것을 과장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든 개인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질적 유일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개인적 가치를 유지해줄 수 있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형의 탄생, 즉 개인적인 인간이 탄생된다.

체에 대한 열망, 공동체 만들기라는 기획은 이처럼 전장으로서의 도시 안에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인문도시가 지향하는 공동체 역시 이 같은 공간을 생성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결국 인문도시지원사업이 ‘도시’를 호명하고 있는 것은 도시의 기능이나 구조,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로 상징화된 현대인의 생활과 삶의 문제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동체란 이 시각에 동의하는 인적 모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동체’의 형성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 공동체주의 논쟁⁸⁾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성립의 당위성 역시 자명한 것은 아니다. 공동체 논의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공동체들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자치공동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생태공동체, 공동체주의적 공동체 등은 그 목적이나 결성 주체 등에 따라 형태와 규모를 달리 하며 이에 따라 성격과 연대의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도시로 인해 탄생한 ‘개인’이 ‘도시 안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어디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질적 유일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서의 도시가 하나의 공동체로 진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바우만의 주장처럼 공동체란 일종의 ‘선긋기’의 산물이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타인들을 배제하는 행위의 산물일 수 있다.⁹⁾ 어떤 점에서 공동체란

8) 도시 혹은 특정 집단(국가, 사회 등)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 간의 문제는 1980년대 미국에서 전개된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 권리, 책임 등의 도덕 덕목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를 이해하려 한다. 롤스(John Rawls)와 노직(Robert Nozick) 등에 대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왈처(Michael Walzer), 샌델(Michael J. Sandel) 등의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자들이 전개한 이 논쟁은 1980년대 정치이론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론은 “철학 및 사회과학의 학문 영역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및 공공 정책 영역 그리고 시민 단체 운동 영역에 이르기까지”(송재룡, 『포스트모더니티와 공동체주의』, 철학과학원 실사, 2001. 113쪽.)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9) Zigmunt Bauman, 이일수 역, 『액체근대』, 도서출판 강, 2009, 269~275쪽 참조.

“평소에는 판이한 개인들 내면에 잠들어 있는 유사한 관심사에 호소를 하는, 그리하여 이들 모두를 잠깐 동안, 다른 관심사들—그들을 결속시키기 보다는 분리하게 되는—은 잠시 방치되거나 아예 망각된 채로 잊혀두고 모두 모여들게 만들 어떤 구경거리”¹⁰⁾에 일체감과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의 표현처럼 ‘짐 보관소로서의 공동체’, 즉 현대의 공동체란 도시적 삶의 짐을 잠시 맡기고 구경거리에 몰두하지만 다시 짐을 지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야 하는 한시적 모임에 그칠 우려를 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1년이나 3년의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한시적 사업이며, 강좌나 축제, 체험 등을 기본 요소로 하는 인문학 제공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인문공동체건 지역공동체건 제반 인프라의 구축과 행정적·제도적 기반과, 지향을 같이 하는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연대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결성을 위해서는 그 기간이나 규모, 실현 방법들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문도시지원사업이 표방하는 ‘공동체’란 생활양식을 바꾸고 경제적 기초를 공유하는 공동체, 대안적 삶의 형태나 자치적 공간을 지향하는 공동체이기보다 오히려 특정한 공간, 배우만이 이야기하는 ‘짐 보관소로서의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적 삶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하지만 한시적인 공동체가 인문도시지원사업이라는 공동체가 갖는 한계인 셈이다.

그러나 이 한시적인 ‘짐 보관소로서의 공동체’는 또 다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짐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도시적 삶의 한계를 벗어나 소모되고 평준화된 스스로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하다면 그 같은 공간

10) 위의 책 317쪽.

의 제공이야말로 인문학이 수행해야 할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이미지에 대한 아무 걱정 없이 행동하는 것,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고하는 것-이것이 인문학이 언젠가 우리에게 제공해야 할 자유”¹¹⁾인 것처럼, 한시적이지만 꿈과 몽상이 가능한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인문도시는 ‘집 보관소’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공간, 푸코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푸코에게 헤테로토피아는 자기 이외의 공간에 맞서서, 어떤 의미로는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장소들이다.¹²⁾ 그 존재 자체로 나머지 정상 공간들을 반박하고 이의제기하는 공간이기에 ‘대안 공간’ 혹은 ‘반공간(反空間)’이며, 서로 양립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공간이 실제의 한 장소에 겹쳐지는 그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푸코는 이러한 공간의 예로 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극장을 들고 있는데, 영화관의 거대한 장방형의 무대 그 깊숙이 이차원의 공간 위에 삼차원의 공간을 새로이 영사한다는 점에서 이질적 공간의 겹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인문도시 역시 도시적 삶의 주된 문제들에 맞서서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킨다. 인문도시의 강좌와 체험, 축제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일상적 질서를 반박함으로써 그것이 ‘비정상’임을 일깨운다. 개인주의적 공간인 도시 안에 공동체적 이념을 전파하는 ‘극장’으로서의 공간을 개방하고, 도시의 자본주의적 질서에 반자본주의적인 사유, 인문학을 ‘영사’한다. 한시적이지만 인문학적 박물관과 도서관을 도시의 시민들에게 개방해놓는다.

11) Kurt Spellmeyer, 정연희 역, 『인문학의 즐거움』, Human & Books, 2008, 26쪽.

12) Michel Foucault,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6. 이하 푸코에 대한 설명은 이 책에서 정리하였으며, 편의상 직접 인용을 제외하고는 해당 면수는 밝히지 않는다.

이 반공간(헤테로토피아:인용자), 위치를 가지는 유토피아들. 아이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정원의 깊숙한 곳이다. 그것은 당연히 다락방이고, 더 그럴듯하게는 다락방 한가운데 세워진 인디언 텐트이며, 아니면-목요일 오후-부모의 커다란 침대이다. 바로 이 커다란 침대에서 아이들은 대양을 발견한다. 거기서는 침대보 사이로 헤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커다란 침대는 하늘이기도 하다. 스프링 위에서 뛰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숲이다. 거기 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밤이다. 거기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유령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내 쾌락이다. 부모가 돌아오면 혼날 것이기 때문이다.¹³⁾

또한 푸코는 이처럼 헤테로토피아를 ‘위치의 가지는 유토피아들’이라는 역설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없는 곳이 존재하는 장소, 부재가 현현하는 곳으로서의 장소란 꿈과 몽상의 장소이다. 인문도시 역시 무엇보다 ‘마침내’ 쾌락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강연이 끝나면 도시의 삶이 어김없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테로토피아의 경험이 아이의 내면을 구성하듯이 인문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인문학적 경험을 통해 인문학적 꿈과 몽상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또한 헤테로토피아는 헤테로크로니아¹⁴⁾와 한 계열을 이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박물관과 도서관은 무수히 많은 시간이 쌓여가는 헤테로크로니아이며, 인문도시 역시 지역이 보존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과 기억들을 지속적으로 소환한다는 점에서 헤테로크로니아를 현재에 소환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과거는 계속적으로 발굴되며 재구성됨으로써 현재적 시간을 반박하고

13) 위의 책, 13~14쪽.

14) 유토피아(현실에 없는 공간)와 유크로니아(현실에 없는 시간)와 대구를 이루듯 헤테로토피아(현실에 있는 유토피아)는 헤테로크로니아(현실에 있는 유크로니아)와 대구를 이룬다.

의의를 제기하는 ‘반시간(反時間)’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문도시의 사업 내용이나 그것이 형성하고자 하는 ‘공동체’란 한시적이며 근원적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 보관소로서의 공동체’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이 같은 예외적 경험은 현대적 삶의 제반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 자기성찰의 쾌락을 제공할 수 있는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인문도시는 ‘지금 여기’의 도시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공간과 시간, 즉 인문학적 시공간을 겹쳐 놓음으로써 도시적 삶의 대안으로서의 공동체적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는 ‘가능성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마련이 아니라 이 같은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장소의 개시,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문 자산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인문학적 반성과 성찰을 시도하는 장소에 대한 꿈이 인문도시사업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III. 인문도시 진주의 기획과 타자의 문제¹⁵⁾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문도시 사업의 취지와 역할을 전제할 때 인문도시 사업의 주제는 무엇보다 도시적¹⁶⁾ 삶의 문제에 기반하고,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인문도시 사업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타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방인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를 순

15) 이하의 사업 내용은 인문도시 진주 사업단, 『2020 인문도시 진주 사업 계획서』(2020)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하였다.

16)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여기서 도시적 삶이란, 특정한 인구 규모 이상의 지역이나 대도시를 지칭한다기보다 현대적 삶을 지칭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한 집단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다른 것, 낯선 것, 이질적인 것과 거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타자는 특정 공동체로부터 거부되고 추방되었다. 현대사회, 특히 도시 공간에서 이러한 타자들이 무한히 급증하고 있음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게토화된 타자들, 공간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곳에 수용된 타자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내면 공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들로 인해 우리의 안과 밖은 타자의 피난처와 수용소로 가득하다.

이런 점에서 ‘타자’의 문제는 철학적 관심사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로 확산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하듯 현대의 정체성이란 “이해관계로 향로를 삼던 배들이 침몰하자 구조를 기다리는 조난자들이 가장 움켜질 법한 지푸라기”가 되었고, 타자의 배제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병리현상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우리는 “대화와 조정의 기술이 쇠퇴하고 참여와 상호 헌신 대신 도피와 생략”을 하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배제와 도피는 다문화가족, 새터민, 이주민, 학교 밖 청소년, 임대주택이라는 공간에 갇힌 영세민의 문제를 통해 일차적으로 외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 타자들이며, 나는 나인 동시에 상대의 타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일 집단 내에서의 소외와 배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타자’의 문제가 단순히 특정 외부 집단에 대한 호의와 배려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특정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드러나는 우리 안의 ‘절취선’에 대한 사유와 그 극복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문도시 사업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시급한 책무라고 생각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문제를 소위 ‘타자의 윤리학’이라 부르는 이론에 기반하여 ‘타자는 모든 것이 박탈된 궁핍한 얼굴의 모습으로 나에게 현현’하

17) Zigmunt Bauman, 앞의 책, 176쪽.

며 ‘대상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나의 윤리적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나라는 동일자로 흡수되지 않는 절대적인 타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타자에 대해 가지는 윤리적인 책임성이 나의 나됨, 즉 나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근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⁸⁾ 그가 주장하는 ‘내가 나에게 전념하는 세계를 떠나, 나와 전혀 다른 자에게로 가서 그를 위해 나를 종처럼 건네주는 일’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타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공동체에 대해 사유하는 인문도시 사업의 중요한 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2020년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진주시¹⁹⁾의 경우는 특히 ‘타자’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더욱 필요했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일반적으로 갖는 문제들을 넘어 소위 ‘안인득 사건’이라 불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과 학생은 물론 진주시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이 ‘임대아파트’이며, 영세민뿐만 아니라 새터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지역 내의

18)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 타자의 얼굴』, 문학과지성사, 2005. 146~152쪽.

19) 경상남도 진주시는 조선 고종 33년(1896년)에 전국을 13도로 개편함에 따라 경상남도에도 속해지고 도청소재지가 되어 관찰사가 진주에 상주하였으며, 경남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1925년 4월 1일 경상남도의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 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진주부는 진주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와 진양군을 각각 폐지하고 통합진주시를 설치하게 되었다. ‘진주대첩’과 ‘축석루, ‘논개’가 떠오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진주는 외세에 대한 항거의 역사를 지역 전통으로 삼고 있다. 또한 진주는 조선시대 학정에 항거한 농민 봉기의 시발점이며(1862년 칠종 연간), 동학운동 참여지역(1894년)이었고, 근대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인 ‘형평운동(1923년)’의 발상지로서 불의에 항거하고 평등과 대동의 사회를 지향하는 정신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진주는 서부 경남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 박경리 작가(통영)와 이병주 작가(하동) 등 통영, 삼천포(사천), 함양, 함안, 하동, 고성 등 서부 경남 지역의 문화인들이 진주에 유학하거나 활동함으로써 이 지역의 문화 저수지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인물자산의 전통 속에서 남인수, 이봉조 같은 음악인들이 탄생했으며, 해방 후 지방 최초의 예술제인 ‘개천예술제(1949년)’가 개최되어 전국적인 예술제로서 현재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주오광대놀이, 진주검무, 교방문화, 진주비빔밥과 냉면, 공예품 등 다양한 인문자산이 산재해 있는 도시이다.

타자에 대한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던 것이다. 또한 진주시는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의 통합으로 14개 동, 1개 읍, 15개 면, 인구 35만여 명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이며 자연히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적지 않다. 또한 새롭게 지정된 혁신도시가 입주함으로써 ‘혁신도시>구(舊)도심>읍면’의 순으로 경제 및 문화적 위계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혁신도시 내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문화 활동을 통해 해당 주민들의 문화적 수혜가 가능하지만 구 도심, 농촌으로 갈수록 이 같은 기회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원주민과 이주민, 즉 타자와의 융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인문도시 진주 사업단은 ‘인문학, 진주를 품다’라는 브랜드명을 채택하고 소통과 치유, 동행의 인문정신을 전파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주체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은 ‘출산’이다. 출산을 통해 나는 가능성과 만나며 무한한 미래의 시간과 관계할 수 있다.²⁰⁾ 아이는 나에게서 나왔으나 내가 아니며, 진주는 조개에서 나왔으나 조개가 아닌 것처럼 출산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한 생산은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의 출현이며 새로운 미래의 계시이다. 나는 유한하나 이러한 생산을 통해 무한을 꿈꿀 수 있는 것이다.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인문도시 진주의 슬로건인 ‘인문학, 진주를 품다’에 담긴 ‘품다’라는 단어에는 ‘탄생시키다’, ‘키우다’, ‘품속이나 가슴에 대어 안다’, ‘마음속에 가지다’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우리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타자들과 가슴을 대어 만나며,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진주’처럼 빛나는 인문도시의 시민으로 ‘다시 함께’ 탄생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셈이다.

타자와 함께 하는 삶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일시적이지만 해방된 삶을

20) Emmanuel Lévinas, 김연숙 역, 『타자윤리학』, 인간사랑, 2001. 159~164쪽.

꿈꿀 수 있는 ‘헤테로토피아’적 공동체를 꿈꾸기 위한 인문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치의 선정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문도시 진주 사업은 ‘소통’, ‘치유’, ‘동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조명하고 인문학을 전파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 가지 키워드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통’은 나와 타자, 우리와 타자들 사이에 이해와 교섭의 다리를 놓는 일이며, 현대사회의 관계가 지닌 가변성과 유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닳과 같다. 그런 점에서 소통은 타자를 이해하는 근본 조건이며 ‘인도적 다가섬’의 의미를 지닌다. 다른 이에게 다가서는 것, 다가서서 교체하고 친분을 나누는 것은 일종의 박애이며 타자에 대한 환대가 된다. 소통이라는 다가섬을 통해 타자의 걱정은 나의 걱정이 되며 이때 비로소 나와 타자는 서로를 거부할 수 없는 ‘짜꿍’로 인정하게 된다. 두 번째 키워드 ‘치유’는 소통의 결과이며 동행의 전제이다. 앞서 예를 든 레비나스의 말처럼 때로 ‘타자는 모든 것이 박탈된 궁핍한 얼굴의 모습으로 나에게 현현’한다. 타자라는 말은 소외와 배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말에는 항상 고통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 다문화가족, 이주민, 학교밖 청소년, 빈민과 같은 눈에 보이는 타자들 외에도 우리 내부 안의 무수한 타자들은 앓았으며, 앓고 있다. 인문학이 지닌 관심과 공감의 공능을 통해 자신과 타자의 고통을 ‘품어서’ 치유·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세 번째 키워드 ‘동행’은 우선적으로 나와 타자가 ‘동고동락(同苦同樂)’하고 ‘동거동락(同居同樂)’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와 타자의 사회적 근접성은 ‘동거’로 드러나고, 심리적 근접성은 ‘동고’를 통해 가능하다. 동행은 ‘동거’와 ‘동고’로 연대한 주체와 타자가 미래를 향해 ‘함께 함’에서 ‘함께 감’으로 이행하는 일이다. 각자의 독자성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정신의 바탕 위에서 동행하는

시민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도시적 삶의 문제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과 동행의 정신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외화될 필요가 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요강에는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지역의 역사, 철학, 건축, 문학, 예술 등의 자산을 발굴하고 현재화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걸맞은 인문학적 지식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전과 교양서, 최근의 사회구조와 산업의 변화에 인문학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강연과 체험 역시 필요하다. 지역의 인문자산만으로는 문학, 심리, 과학, 인류학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문소양과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지역적 개성에 담긴 보편성을, 보편적 지식 속에 숨겨져 있는 지역적 개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살이에 대한 보편적 이해의 틀을 넓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에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는 해당 도시의 지자체와 기관, 문화단체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²¹⁾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문도시 진주 사업의 경우 진주시, 진주시교육청, 진주시보건소,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3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관과 단체들과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

21) 송덕근·노영희·곽우경,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10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192쪽.

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둘째로 해당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인문자산 외에 새로운 자산을 발굴하거나 기존 자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문도시 진주 사업에 의 경우 인문자산의 발굴과 조명을 위해 ‘진주학’이라는 주제를 수립하고 진주시와 함께 다양한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성과와 관심의 지속성이다. 헤테로토피 아로서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제공하는 인문학적 소양과 체험 등은 한정 기간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도시에 인문학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과 행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인문학 관련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도시의 인문학 관련 행사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문도시 진주의 경우 ‘인문매개자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0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진행되는 3년 동안 해당 도시의 인문사업들을 연구하고 이후에는 인문학 관련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실행을 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년차의 프로그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 인문도시 진주 인문매개자양성사업 1년차 프로그램

강사	시간	강좌명	인원	적용영역
사업단	1시간	오리엔테이션/자기소개 (사업단장/진주시문화예술과)	40명	개강식
		진주의 문학/역사/철학/문화 특성 이해하기		
조문환	2시간	인문학과 여행	40명	특강
극단현장대표	2시간	인문학과 연극기획	40명	진주의 역사인물
진주시민미디어 센터장	2시간	인문학과 미디어의 역할	40명	진주의 문화

강사	시간	강좌명	인원	적용영역
작가	2시간	인문학과 사람	40명	인문매개자 미래비전
워크숍: 경상대학교 예절교육원, 1부: 중간 점검(1시간) 2부: 인문매개자 강사와의 만남(1시간)				
진주문화원 원장	2시간	진주문화원의 인문학 사업	40명	진주의 정신과 가치
극단 큰들 대표	2시간	인문학과 전통의 창신: 극단 큰들의 역사와 함께 하다	40명	진주의 전통문화
경남문화예술회관 부장	2시간	인문학과 예술공연	40명	진주의 예술
진주문고대표	2시간	인문학과 서점	40명	서점에서 만나는 진주의 문화
경남관광박람회 조직위원장	인문학과 관광(진주의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수료식	1부: 피드백 및 수강 소감(1시간) 2부: 수료식(1시간)			

결국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도시적 삶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이를 통해 인문정신에 입각한 공동체의 형성을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도시가 갖는 제반 조건들을 분석하고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도출함으로써 사업의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인문도시 진주 사업단의 경우 ‘인문학, 진주를 품다’라는 주제로 ‘우리 안의 타자와 함께 가는 인문도시 진주’를 선정한 까닭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들의 구성에서 오는 소통과 동행의 필요성, 사건·사고에서 오는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출발하였다. 짐 보관소로서의 공동체인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해방공간이건 인문도시의 가치는 시민들 스스로가 좀더 나은 인간적 삶에 대한 염원을 촉발시키고, 대안적 사유의 계기를 함께 마련하는 데 있을 것이며,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성공 여부 역시 이에 달려 있다.

IV. 결론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이전의 인문학 대중화사업과는 달리 지역의 인문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강좌, 체험, 축제 형식의 사업이다. 인문도시 진주 사업단은 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의 주체이자 대상인 시민들의 삶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사업이 목표로 하는 공동체의 정의와 그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문도시 진주 사업단은 인문도시란 ‘집 보관소로서의 공동체’인 동시에 헤테로토피아적인 공간의 창출을 통해 도시적 삶의 문제를 성찰하고 좀더 나은 사회를 향한 꿈과 몽상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즐거운 인문학, 참여하는 인문학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인문도시 진주 사업단은 진주시에 필요한 가치가 ‘우리 안의 타자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 타자들이며, 나는 나인 동시에 상대의 타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일 집단 내에서의 소외와 배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타자’의 문제가 단순히 특정 외부 집단에 대한 호의와 배려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배제와 소외의 극복이야말로 인문학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시급한 책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문학, 진주를 품다’라는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1년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애초 계획했던 사업 중 적지 않은 부분들이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모든 분야도 그렇지만 인문도시 진주 사업단 역시 이에 대한 대처를 고심하고 있다. 강연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축제와 체험 등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들은 미션형 체험으로 변경하여 개인이나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한 대안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떠나서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그 방법과 목표가 비대면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하는 물음, 혹은 유효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물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소통과 치유, 동행을 통해 우리 안의 타자와 함께 가는 인문도시를 꿈꾸는 인문도시 진주 사업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 타자의 얼굴』, 문학과지성사, 2005.
- Georg Simmel,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 Michel Foucault,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6.
- Wilhelm von Humboldt, 양대종 역, 『인간교육론』, 책세상, 2012.
- 송덕근·노영희·곽우정,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10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 송재룡, 『포스트모더니티와 공동체주의』, 철학과현실사, 2001.
- Emmanuel Lévinas, 『타자윤리학』, 김연숙 옮김, 인간사랑, 2001.
- 인문도시 진주 사업단, 「2020 인문도시 진주 사업 계획서」, 2020.
- Zigmunt Bauman, 『액체근대』, 이일수 역, 도서출판 강, 2009.
- Kurt Spellmeyer, 『인문학의 즐거움』, 정연희 역, Human & Books, 2008.
- 홍준기,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철학탐구』 Vol.29,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1.
- OECD·국토연구원,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국토연구원, 2013.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p.11, p.37 DOI : <https://doi.org/10.18356/b9e995fe-en>

<Abstract>

The Humanities City as a Heterotopia and the Problem of the Other in the Community

- Purpose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Humanities City project in Case of Jinju

Jang, Man-ho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 methods and goals of the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and then describ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process of setting the subject, and specific project details of the 'Humanities City Jinju' project selected as the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in 2020. The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is a project aiming at the formation of a local community and a humanities community through the use of local cultural heritage to spread humanities to citizens. For the efficient progress of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s of modern city and urban life, and the possibility and character of community formation. In this process,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functioning as a heterotopian space for Foucault as well as the "community as a luggage storage" that Sigmund Bauman referred to as a humanities city.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Humanities City Jinju Project decided that the value needed in Jinju City, was 'to go with the other within us'.

The fact that we are all fundamentally other people, and that I and I have no choice but to be the other's other at the same time, is that we are always exposed to the alienation and exclusion within the same group. It reminds us that it is not caring, it is a fundamental problem with me and u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overcoming exclusion and alienation is an urgent responsibility that humanities must bear, the subject of "Humanities, Embracing Jinju" has been deriv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spread the values of communication, healing, and companionship.

Key words : Humanities City, Humanities, Jinju City,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City, Community, Others, Heterotopia

장만호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bluwish@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3월 31일 투고되어 2021년 4월 5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1년 4월 12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